

‘실천적 부족주의’로서의 한국 로컬출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현정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며
2. 현대 한국사회와 부족주의
3. 한국의 로컬출판과 문화적 의미
4. 나가며

국문초록

근대는 ‘개인’과 ‘사회’라는 독특한 존재 양식과 함께 출현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성격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로컬출판을 사례로 오타쿠, 마니아, 덕후, 부족주의 등이 가진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즉자적이고 소비주의적 경향만 부각 되어온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의 이면에는 경직되고 획일화된 삶의 경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이미 인디문화, DIY, 생비자(生費者, prosumer) 등의 사회적 흐름을 통해 그 일단이 드러났던 새로운 사회구성원들의 움직임을 ‘부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문화사회학적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주제에 로컬출판, 취향공동체, 마페줄리, 신부족주의, 실천적 부족주의

1. 들어가며

사회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빠르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발달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한다. 그 속에서 전통적인 사회학적 연구대상들의 성격과 실천의 양상도 크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과 연동되어있던 사회학의 개념과 의미도 달라져야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수많은 사회학적 담론들이 최초의 생기를 잃고 유행처럼 떠돌고 있다.¹⁾

일찍이 토니스는 근대사회의 출현과 함께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가 ‘게젤샤프트 Gesellschaft’로, 다시 말해 ‘운명적으로 귀속된 원초적이고 무지한 공동체’가 ‘근대에 출현한 새로운 존재 양식인 ‘개인’의 선택과 합리성에 기반한 계몽된 공동체’로 이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예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이분법의 모순적 비극을 일찌감치 인식한 고전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계몽된 자들은 자신만을 책임지는 합리적 도덕에 골몰하며 공동체로부터 열정을 증발시켜버린다. 반면 무지한 자들은 맹목적 흥분에 젖어 공동체의 진보를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둘 다 공동체의 해체로 귀결한다. 어느 것도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전자의 공동체는 진보하되 메마를 것이며, 후자의 공동체는 뜨겁게 달아오르되 쇠퇴할 것”이라며, “‘도덕적 광기’라는 새로운 정념에 근거한 프로그램(공화주의)이 근대의 딜레마를 해결하리라 믿었다.”(심보선 2009: 481-482)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라는 개념으로, 이후 ‘사회’는

1) 김문종 외(2022)는 책 전체에서 이런 새로운 경향을 포착하려는 한국 사회학자들의 노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저자들은 기존의 사회학에서 개별화, 파편화, 소외 등의 개념으로 분석했던 사회 현상들을 이전처럼 사회구조적 압력에 의한 고립이나 배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적극적인 ‘개인화’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과 집단의 무자비함(운명)을 고차원적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모순된 두 개의 공동체 바깥에서 초월적 특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대처럼 과연 ‘사회적’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며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또 하나의, 어쩌면 현실의 사회보다 더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사회가 출현했고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현대의 청년들에게 개인과 이성에 대한 신뢰는 낮아 보이며, 사회와 연대 - 의도와 목적을 가진 - 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아 보이지 않는가.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뒤르켐의 문제의식을 좀 더 발전시키며 이런 현대의 풍경을, “간단히 말해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형태로 제도화된 권력이 한편에 있고, 그에 맞선 제도화하는 역능

puissance

이 다른 한편에 존재한다.”(미셸 마페졸리 2017: 9) 라고 묘사하고, 제도화된 힘에 대응하는 ‘다소 아노미적이고 무질서한 야생’으로서의 역능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른바 ‘부족’을 통해 근대성의 병리로부터 빠져나와 새로운 사회적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병철의 표현을 빌자면, “소통 없는 공동체’와 ‘공동체 없는 소통’만 남은 이 시대”(한병철 2021: 8)에 ‘소통하는 공동체’는 정말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 주류와 비주류, 인싸와 아싸, 이성과 광기 사이에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고 생존해내는, 마페졸리가 말하는 제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역능의 힘은 과연 가능할까.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로컬출판이라는 사례를 통해 집합적 열정과 비합리적 감정으로부터 제도화 ‘하는’ 역능의 가능성으로까지 나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면을 탐색적으로 추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현대 한국사회와 부족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요약되는 산업사회에서는 획일화된 가치관과 기

능을 중심으로 상품뿐 아니라 인간 역시 필요한 노동력의 충당을 위해 대량으로 찍어내듯 교육돼왔지만, 서구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87체제를 기점으로 이러한 획일주의에 대한 반동이 나타났다. 더불어 대중문화의 범람, 해외여행 자율화와 전반적 세계화,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와 다품종 소량생산의 생산방식 변화 등 총체적 사회변화와 더불어 능동적이며 자발적 문화형성으로서의 인디, 독립문화, 프로슈머 등이 등장했고 저마다 개성화,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감성, 가치관을 문화적 의미로서 생산하거나 소비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개인적 패턴을 넘어 집단별로 나아가더라도 소규모의 폐쇄적 집단 속에서 자신들만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혹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생활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과거 산업사회의 대중들이 그야말로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름의 의식이나 감수성이 없는 한 '덩어리(Mass)'로서의 대중(大衆)으로 취급됐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중(Multitude),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등 새로운 용어들의 등장과 함께 중범위적으로 세분화되며 다양한 속성과 결을 지닌 집단들로 새로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1983년 처음으로 '오타쿠(オタク)'라는 말이 등장했고 1989년에는 대중적 인지를 얻기 시작했으며²⁾ 한국에서도 '오틱', 혹은 '딕후' 같은 은어로 표현되는 마니아 무리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용어였던 '마니아 Mania'는 통상 특정 대상에 몰입해 일반적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사회 일반의 가치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길 원하며 또 자신들만의 문화나 고도의 전문성을, 그 사회적 필요나 기능과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회 일반의 기준과 상관없는 자부심을 보

2) 조흥미·안병곤(2012: 515)에 따르면, 일본에서 "오타쿠라는 용어가 정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83년 나가모리 아키오(中森夫明)에 의해서"였고, "또한 1989년 이전까지 오타쿠라는 용어는 대중적 인지는 물론이고 사전적 의미로도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89년 『일본어 속어 사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는 특징을 보인다.³⁾ 그러나 이러한 마니아는 대부분 기성 사회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리적이며 강박적 일탈을 일삼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되며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방면에서 주로 다루어졌을 뿐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새로운 마케팅 대상으로서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소비적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테제 아래 전략적 분석들이 존재했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마니아의 실천적이며 사회적 의미를 환기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했다.⁴⁾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정상/비정상이라는 ‘분법(分法)’에 의거한 근대적 세계관에 의해 병리적, 일탈적, 부정적 측면에서만 접근되거나 후기산업 사회의 전략적 마케팅 대상으로서 기능주의적으로 접근되어 온 경향이 있는 ‘마니아’에 대한 관점을 환기하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마니아적 현상들과 그 주체들의 실천과 의미도 새로운 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흔히 즉자적이고 소비주의적으로만 취급해온 부족주의의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의도와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거대담론을 타고 넘거나 미끄러지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삶의 근거[raison d’etre]를 찾으려는 현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은 어떤 특성을 보일까. 기성의 장(場), 기성의 영역에서 제 존재의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역량이 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으로 사는 지역을 옮기고,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전과는 다른 이런 일상 속의 운동, 일상 속의 실천에는 어떤 사회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근대적 현상으로서 출현한 ‘개인’이라는 존재 양식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와 ‘사회적인 것들’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모습으로 이합집산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는 공동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퇴니스가 말한 ‘게젤샤프트’와 ‘게마

3) 마니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언급할 만한 공식적으로 정립된 정의가 없다.

4) 은수진(2007), 김태용(2009) 등을 참조

인사프트'라는 고전적 정의를 넘어서거나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출현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모습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글에서는 마페졸리의 '부족주의' 개념을 중요하게 차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현대의 부족들은 이제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변화와 함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취향과 감정, 열정과 관심을 중심으로 관계 맺던 부족들이 이제는 그 수준을 일상과 실천, 노동과 직업의 층위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부족주의라고 해도 좋을 최근 한국사회의 커뮤니티는 자기계발, 봉사, 기부, 사회적 가치와 기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소비자로서의 공동체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로까지 나아간다. 이전과 달리 민주주의나 노동, 거대담론 중심의 이념에도 일부 주목하지만, 소비와 향유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이슈들, 예를 들어 동물권, 페미니즘, 생태, 청년, 지역 등 새로운(그들만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 프로슈머나 생비자, DIY(Do It Yourself) 등의 논의가 이미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문가 수준, DIT(Do It Together), 생산자, 직업화 등의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분석하고 제대로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 시선과 제도의 힘에 정면으로 저항하지는 않더라도 비켜가거나 미끄러지며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토대로 이전의 관심과 취향을 이제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자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여가'가 아닌 '노동'으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존재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다는 '덕업일치' 같은 말의 유행이 좋은 증거이다. 즉, 최근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의미에서 공동체들은 이전과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과 취향, 감정과 열정을 일상의 근거로 삼기 위한 전략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속에서 매개, 매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존 부족주의 담론과 실천적 부족주의의 공통점 및 차이점

	기존 부족주의 담론	오타쿠/ 마니아	실천적 부족주의
공통점	기존의 가치관에 저항 다수보다 소수 지향 계급보다 취향 중심 일반적, 일방적, 일괄적 문화보다 특수적, 상호적, 개별적 문화		
특징과 차이점	마페졸리의 '부족주의'는 근대적 개념의 개인과 사회로 양분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힘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국가나 민족 같은 근대적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결되었다가 떨어지는 느슨하고도 작은 공동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주로 마케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소규모이고, 상대적으로 체계가 느슨하며, 통합의 강제력이 약한 모임이나 공동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매번 오렌지족, 미시족, 웰빙족, 프리터족 등 새로운 부족들이 출현하여 이른바 '신부족주의'라는 말도 사용한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우 열중하는 사람,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능동적으로 유행을 선도하거나 혹은 유행 따위엔 관심 없이 자신만의 관심에 집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그들만의 강력한 문화가 때론 폐쇄적으로 기능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마페졸리의 부족주의 개념에는 근대성의 병리로부터 벗어나려는 새로운 공동체와 그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실천적 부족주의'는 이처럼 기존 부족주의가 가진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전유하여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서의 부족주의, 소비가 아닌 생산으로서의 부족주의,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부족주의, 나아가 직업적 삶의 전망으로까지 확산된 부족주의를 지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특히 전통과 최첨단 정보기술이 자연스럽게 혼재하는 한국사회만의 독특한 문화도 중요한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마페졸리가 말하는 비합리적 열정, 무질서, 야생 등의 힘을 근거로 삼는 역능과도 사뭇 다른, 어쩌면 사회적 압력이 매우 높은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출현한 새로운 모습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실천적 부족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렇듯 새로운 양상의 실천적 부족주의가 등장한 데는 IT기술과 디지털의 전면적 발달, 노동구조의 변화, 문화예술의 가치 증가,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소외⁵⁾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반감,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의 압력, 기형적 중앙집중에 따른 반작용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요인으로 꼽은 경쟁과 압력, 수도권 과밀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역으로의 이주는 특별한 한국적 현상으로, 실천적 부족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충분한 ‘능력’⁶⁾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꺼이 제주, 통영, 부산, 강원도 등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해 새로운 삶으로의 전회(轉回)를 도모한다. 이 글에서 실천적 부족주의의 구체적 사례로 로컬출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로컬출판은 인디, DIY, 노마드 등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사적 흐름 속에서 그러한 실천적 부족주의의 맥락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한국의 로컬출판과 문화적 의미

한국에서 ‘지역출판’이라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언론에 등장하지만,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독립출판⁷⁾과 혼용되며 지금과

5)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가 만연하는 구체적 방식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는데 노동결과물, 노동과정, 노동관계(동료), 그리고 마침내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가 그것이다. 칼 마르크스(2006)를 참조.

6) 박권일(2021)을 참조.

7) 은지희(2016: 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종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소규모의 팀이 자유롭게 출판물을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을 하거나 기존의 출판사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zine)이나 책의 형태로 독립출판사와 독립출판 서점 등을 통해 인쇄·배포·유통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문화는

같은 의미의 지역출판이란 개념이 정착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이다. 이전까지 지역의 출판사들은 대체로 인쇄 및 제본소의 기능을 담당하며 자비출판이나 소량 출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부산의 경우 2004년에 산지니가, 2008년에 호밀밭이 등장하면서 지역에서도 기획출판을 중심으로 전국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모델의 출판사들이 등장했다. 이후 통영의 남해의봄날, 강원도의 온다프레스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출판사들이 나타나 로컬리티를 강조하며 독특한 출판물들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출판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각 지역에 더 많은 1인 출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 출범한 한국지역출판연대의 회원사는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8개이며, 2022년 1월 출범한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의 경우 202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40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이렇듯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성질의 지역출판 활동이 늘어나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제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도서전이 개최되면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잡지 및 단행본 출판사 연대 조직인 ‘한국지역출판연대(약칭 한지연)’가 조직되었고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도서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수원, 2019년에는 전북 고창, 2020년에는 대구 수성구, 2021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었고 2022년 제6회 도서전은 9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2023년 9월 제7회 도서전은 부산 수영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런 노력과 함께 2018년 2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부산이 ‘부산광역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이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제정한 후 2020년 12월 타법 개정을 시행했고, 대구는 2019년 12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출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분명한 것은 아래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 로컬을 기반으로 한 출판 활동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 하

국내에 200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2008~9년 전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바라보고 분석해볼 만한 연구대상이라는 점이다.

“출판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3,5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새로 등록됐다. 새로 생긴 출판사의 대부분은 1인 출판사다. 출판 창업은 의외로 쉽다. 시군구청에 가서 출판 등록만 하면 된다. 출판사 운영도 쉬워졌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외주 시스템의 도입, 유통의 집중 등으로 혼자서도 출판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기호 2021: 4)

실제로 독서율은 계속 떨어지는데⁸⁾ 출간 종수는 늘어나고,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같은데 모두가 SNS나 블로그 등 자기 매체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쓰는 시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출판을 둘러싼 주체들의 성격이 변화했다. 전문가의 권위가 해체되고 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진 주체들이 매개의 영역으로, 나아가 출판 창업을 통해 생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는 있지만 기록은 없었던 [有史無書] 시대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작은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등을 이전보다 손쉽게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출판하고 기성 출판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출판한다는 행위가 소수의 독점적 권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민주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카이브, 지역사, 동네 기록 등 지역분권과 더불어 자기가 발 딛고 사는 일상에 기반한 구체적 글쓰기의 경향도 두드러지고 이런 흐름은 각 지자체나 문화도시 등의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출판은 관심과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이 더 나아가 가치와 이념, 정치적 올바름(PC)을 공유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생산과 직업의 전망으로까지 이어간다. 이런 흐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해 한결 쉬워진 시공간의 확장도 한몫을 거두고 있다.

8)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간격으로 발표하는 <국민 독서실태>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만 19살 이상 성인 연령층에서 1년에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9년 독서실태보다 8.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고, 읽은 책의 양도 2년 전엔 7권 이상이었으나 이번에는 4권 정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산된 출판물들에는, “가난하지만 재기발랄한, 젊은이들의 매체”, “기성 출판이 담지 못한 독특한 감성이나 가치관으로 문화 다양성에 기여”, “상업적인 이유로 기존 출판사나 서점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한국 주류 문화 바깥의 소중한 시도… 반가운 실험성과 불온성”과 같은 수식어가 붙는다.(정혜윤 2021: 2)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1인 출판사, 독립출판사 등 출판 창업은 청년세대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출판과 관련한 커뮤니티 기획, 독서 모임, 텀블벅 등을 비롯한 소셜펀딩과 특정 주제 및 출판물을 중심으로 한 마니아와 오타쿠의 출현 등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⁹⁾

이런 흐름은 이전부터 있었던 팬덤이나 마니아 등 ‘취향’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형태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이미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감수성과 세계관으로 등장한 인디 문화가 그 단초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디문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그 나름의 매체적 특성과 접근 태도 속에서 미완의 성공¹⁰⁾으로 남게 됐다. 최근 등장한 로컬출판을 둘러싼 새로운 결사체의 움직임은 그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노동과 일상을 위한 구조와 전망을 예감케 한다. 또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며 ‘종이책’이라는 아날로그적 물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바로 이런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여타의 부족주의적 실천과 결정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로컬출판은 독립출판의 특성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독립출판의 상위범주이며 동시에 지방과 지역이 혼동되는 한국적 특성에서 지역출판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채택한 용어다. ‘지역’은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것이 집중되어있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썸’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용어에 스며있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 글에서는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다른 특징까지 포괄하면서 한국적 특성에 맞게 - 한국은 독립출판도 대부분 서울에서-

9) 동아일보(2018-05-21).

10) 장현정(2004)을 참조

로컬출판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문화실천의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예를 들어 독립출판의 경우, 그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로 ‘세대 특정적’ 경향을 보이지만, 실천적 부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을 단지 세대의 문제로만 축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아래 독립출판의 속성을 포괄하면서도 역사적 흐름이나 세대, 혹은 지역적으로 보다 보편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로컬출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¹¹⁾ 물론 현재 한국사회의 로컬출판은 다음과 같은 세대 중심의 독립출판이 보여주는 경향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심화된 경쟁과 포화된 제도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결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탐구하는 데 몰두하고자 하지만 주거, 취업, 고용난 등의 사회의 외부 요인에 의해 좌절감을 맛본 에코붐세대는 같은 세대가 내는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공감하고 소비”하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에코붐세대에게 속박이 없으면서도 약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취향의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선택적이기에 편리하다. 현재 국내 독립출판문화 전반은 에코붐세대에게 정서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지퍼주는 새로운 하위문화이며 취향 단위 공동체가 앞으로 문화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¹²⁾

그렇지만 현대 한국사회의 극심한 압박과 경쟁 속에서 새로운 삶과 공동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로컬출판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부족’들의 대안적 실천은 단순히 문화 소비, 일시적, 편리한, 정서적, 개인적 수준에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또 이런 실천들이 한 개인의 실존에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과 활로가 될 가능성도 보여준다. 개인과 개인이 관계 맺음으로써 공동체가, 나아가 지역사회가, 그래서 중국에는 국가, 블록,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활로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전의 팬덤

11) 본 논문의 후속연구로 계획 중인 로컬출판의 주요 연구대상인 한국지역출판연대의 회원사 38개와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원사 40개를 보면 80%가 최근 3~5년 사이 창업한 1인(독립) 출판사이지만, 이들은 세대별로 혹은 그 밖의 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묶기 어렵게 다양한 배경으로 퍼져있다.

12) 서수경(2019)을 참조

이나 마니아 등의 양상이 한 발만 담그는 식의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면, 최근 로컬출판이라는 장(場)은 진지하게 말하면 개인의 취향을 넘어 19세기 영국의 뮤직홀처럼 계급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협업하는 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¹³⁾ 이는 또한 1980년대 이후 힘을 얻었던 문화연구의 전통이 비로소 유의미하고 근본적인 생산 관계의 변화와도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¹⁴⁾을 보여준다.

근대의 ‘개인’, 그리고 근대의 ‘대중’은 근대 미디어의 탄생 그 자체를 배경으로 한다. 근대의 미디어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매스(mass)’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 이른바 대중매체의 등장이다. 그리고 인쇄 및 제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신문은 근대 미디어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은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의 언어, 즉, 표준어로 다름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공유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표준어가 보편화되었으며, 그만큼 사투리는 설 자리를 잃어 갔다.

그런데, 근대적 지식의 출현을 견인하며 ‘개인’과 ‘주체’, ‘대중’과 ‘사회’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쇄술과 출판¹⁵⁾은 왜 21세기 들어 거꾸로 ‘함께’ 읽기, ‘사회적’ 읽기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을까.¹⁶⁾

13) 김문점(1993: 73)은 “뮤직홀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긴장해소와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교환도 있었고, 계급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14) 이성철(2002, 2003a, 2003b)은 문화연구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정치경제학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의 이행이라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이 혹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평가는 서두에서 밝힌 문화와 사회의 여타 요소들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사고방식이며, 나아가 사회적 생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과연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동의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문화실천 전략들은 지배 문화에 대한 비틀기나 냉소 또는 조롱, 그리고 이로부터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탈주에만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들은 노동자 계급의 문화적 실천을 일상적인 소비라고 하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적 소재에 국한시키고, 노동자 계급의 운동성을 봉인시켜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 육영수(2010)를 참조.

16) 김지연(2021)을 참조.

어네스트 겔너(2009)와 같은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학습과 교육이 또 다른 '종속'의 과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다. 문자와 기록의 보급이 일반화되었다 하더라도, 민중들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생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지적을 더욱 깊이 참고해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보급 역할을 해온 출판이, 이제는 그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바야흐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미디어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의 출판은 일제강점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상당 기간 진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카이브에 주목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텀블벅과 같은 소셜펀딩 사이트를 활용해 기성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출판하고 공유하는 등 다양한 흐름이 빠르고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기성 언론과 새로 등장한 언론, 전문가와 비전문가 등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장단점이 존재한다. 독립출판 등의 흐름이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록과 발화의 권리와 실천이 빠른 속도로 민주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흐름은 특히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지거나 유의미한 수준의 산업적 규모를 보이는 것은 주로 수도권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흐름의 양상은 기존 출판의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지역에서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복류(伏流)하는 사회학적 의미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 중앙집권적이고 일방적이며 대량 유통을 전제로 행해지던 출판 행위도 문화적 변화와 기술적 발전의 도움으로 다원화, 쌍방향, 독립 및 소량, 소셜 펀딩을 통한 소규모출판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글로벌, 디지털 등 양극화되는 양상도 보인다.

한국의 지역출판은 지금까지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있었으나 최근 청년들의 탈수도권 현상과 지역에서의 출판 창업,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출판 및 커뮤니티 활동의 출현 등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구선아·장원호(2018: 103)에 따르면, “기성 출판문화의 하위문화 형태로 처음 나타난 로컬출판은 저항성, 창조성, 고유성, 자주성과 주로 도시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며, 기존 출판문화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과 독립서점 증가에 따른 독립출판 시장 변화 때문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출판문화의 변화, 독립서점의 증가, 사회적 담론의 공론화 현상이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기표현 욕구의 발현과 개인 취향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로컬출판을 주도하는 이들은 이른바 MZ세대들이다. 물론 업력 10년 이상의 기성출판사들은 세대가 다르지만, 독특한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출판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17년 12월 2~3일 진행된 독립출판마켓 언리미티드에디션은 이틀간 1만 8천 2백여 명이 마켓을 찾아 성행했고, 독립출판에 관련된 책, 독립출판제작자에 대한 뉴스, 인터뷰 기사도 매체를 막론하고 찾아지며 문화의 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 현재 이러한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독립서점은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독립출판물을 소중 다루는 카페, 극장, 복합문화공간까지 합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독립출판이 증가하는 현상은 출판계는 물론 문화예술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독립서점이 새로운 문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변화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구선아·장원호 2018: 104)

4. 나가며

한국의 로컬출판은 지금까지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있었으나 최근 청

년들의 탈수도권 현상과 지역에서의 출판 창업, 비대면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출판 및 커뮤니티 활동의 출현 등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로컬출판의 현재를 사회변화의 흐름과 연동해 살펴봄으로써 로컬출판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공동체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미래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로컬출판은 서울 중심, 주류 중심, 규모 중심 등 기존 가치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부족주의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한국 사회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독립서점, 독서모임 등의 커뮤니티로 미끄러지고 새로운 연결망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의 공동체에서 실천의 공동체로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1990년대 말 출현한 인디문화와 DIY를 거쳐 현재의 로컬출판은 더 진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로컬출판은 새로운 성격의 부족 출현 증명을 위한 하나의 소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왔지만 선한 의지와 영향력을 목적으로 관심의 공동체에서 취향의 공동체, 나아가 실천의 공동체로 진화하며 개방과 민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의 로컬출판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사회학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디지털, 글로벌과 로컬(글로벌로컬) 등의 사회 구성 변화와 한쪽에서의 기술 발전(공유와 참여), 다른 한쪽에서의 비합리적 믿음(사주, 무속, 타로, MBTI 등)이 공존하는 사회적 환경이 가장 잘 구비된 곳이 한국 사회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지금 한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사회학적 특징을 갖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⁷⁾ 한국사회 로컬출판의 실천 속에 정말로 새로운 경향의 부족주의라고 할만한 점이 있는지,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는 전망과 가능성이 있는지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이다.

17) 한국은 반주변부에서 세계 주류로 진입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 힘의 원천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관계성은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이다.

참고문헌

- 구선아·장원호(2018). 독립출판 증가현상의 사회적·심리적 요인, 〈지역사회학〉 19-1. 103-104쪽.
- 김문조 외(2022). 탈사회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김문겸(2007). 근대화와 새로운 여가양식의 형성: 19C 영국의 뮤직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호.
- 김지연(2021). 새로운 독서 활동의 양상과 독자 개발의 한 방법,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논문.
- 김태용(2009). 일본 오타쿠 문화의 재현, 실천, 상품화,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용(2009). 주류가 된 오타쿠, 쇠퇴하는 오타쿠문화, 〈문화과학〉 59호.
- 미셸 마페졸리, 박정호·신지은 역(2017). 부족의 시대. 문학동네.
- 박권일(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 서수경(2019). 에코붐세대의 독립출판문화 소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 석사학위논문.
- 심보선(2009). 불편한 우정: 어떤 공동체의 발견, 〈문학과 사회〉 22-3.
- 어네스트 겔너, 최한우 역(2019).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출판부.
- 육영수(2010). 책과 독서의 문화사. 책세상
- 은수진(2007).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본 오타쿠의 잠재력: 모에(萌え)시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지희(2016). 2000년대 한국 독립출판물 생산자 연구-미디어·문화 생산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철(2002). 노동자계급문화의 성격과 문화적 실천을 위한 과제, 〈사회과학연구〉 9호.
- 이성철(2003a). 노동운동 : 노동자계급과 문화실천: 이론적 서설, 〈산업노동연구〉 9호.
- 이성철(2003b). 노동자계급과 문화적 실천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경제와 사회〉 60호.
- 장현정(2004). 부산지역 인디(INDIE) 록 밴드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 조흥미·안병곤(2012). 오타쿠에 관한 시대별 특징 연구, 〈일본문화연구〉 42호.
- 칼 마르크스, 강유원 역(2006). 경제학-철학 수고. 이론과실천.
- 한기호(2021). 새로 쓰는 출판 창업.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한병철, 전대호 역(2021). 리추얼의 종말 - 삶의 정치 없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영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동아일보(2018). 너도나도 1인 출판... 성공까지는 '좁은 문', (검색일:2024.05.2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514/90077489/1>

필자 소개

성 명 장현정

소 속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63 광원아파트 101동 1604호

전자우편 hjmiro@naver.com

Abstract

A Critical Reflection on Local Publishing in Korea as ‘Practical Tribalism’

Jang, Hyun-ju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odernity emerged with a unique way of being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However, with the rapid changes in modern society, the nature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also changing.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of ‘otaku’, ‘mania’, ‘geekdom’, and ‘tribalism’ as practical and productive communities using the case of local publishing as a new cultural trend in Korean society.

These small-scale communities, which have been highlighted for their instantaneous and consumerist tendencies, reflect the will of new members of society to find their own ‘raison d’être’ by breaking away from rigid and uniform life paths. This paper examines the movement of new social members, which has already been revealed through social currents such as Indie culture, DIY, and pro-sumer, from the perspective of ‘tribalism’ and explores the cultural and sociological implications of new communities.

[Key words] Local Publishing, Community of taste, M.Maffesoli, Neo-Tribalism, Practical-Tribalism

투고일 2024. 06. 26 / 심사일 2024. 07. 13 / 게재확정일 2024. 07. 17